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수 변화는 학급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교실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작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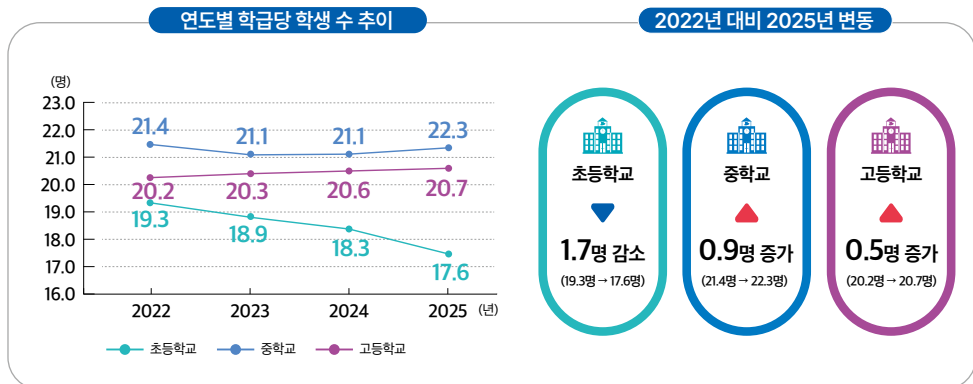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 19.3명에서 2025년 17.6명으로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 폭이 학급 수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학급 규모도 함께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 맞춤형 지도와 기초학력 지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작은학교 증가와 학교 운영 효율성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2022년 21.4명이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23년과 2024년에는 21.1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에는 22.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20.2명에서 2025년 20.7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학생 수는 비교적 유지되는 가운데 학급 운영 규모 조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학급 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급 규모를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교급별로 교실의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19.3	18.9	18.3	17.6
중학교	21.4	21.1	21.1	22.3
고등학교	20.2	20.3	20.6	20.7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지역의 변화, 교육의 새로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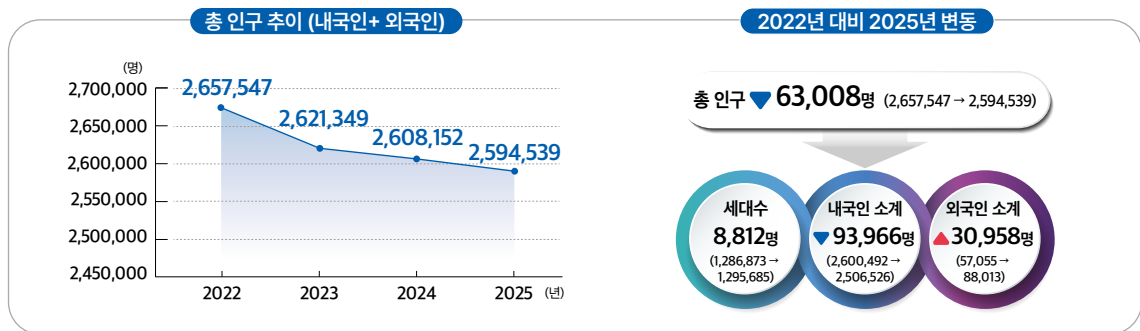
인구 및 세대 변화

경상북도의 인구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265만 7천여 명이던 경북 인구는 2025년 259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며 최근 4년 동안 6만 3천여 명이 감소했다. 반면 세대 수는 같은 기간 128만 6천 세대에서 129만 5천 세대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 규모 축소 같은 생활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구는 2022년 5만 7천여 명에서 2025년 8만 8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산업 인력 수요와 유학생 증가, 결혼이민자 확대, 지역 정주 인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학교 현장 역시 이러한 지역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학교 구성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배경에도 지역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경북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지역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교육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

연도		2022	2023	2024	2025
세대수		1,286,873	1,282,500	1,291,568	1,295,685
총 계	총계	2,657,547	2,621,349	2,608,152	2,594,539
	남	1,347,878	1,333,750	1,330,385	1,325,498
	여	1,309,669	1,287,599	1,277,767	1,269,041
내 국 인	총계	2,600,492	2,554,324	2,531,384	2,506,526
	남	1,311,881	1,290,298	1,280,547	1,268,493
	여	1,288,611	1,264,026	1,250,837	1,238,033
외 국 인	총계	57,055	67,025	76,768	88,013
	남	35,997	43,452	49,838	57,005
	여	21,058	23,573	26,930	31,008



<자료: 경상북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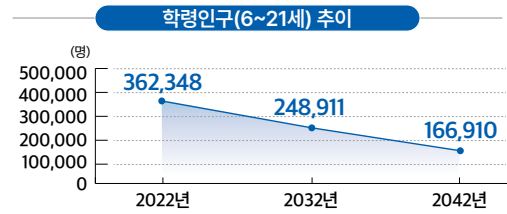
학령인구 추계

경북교육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꾸고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이다. 현재보다 앞으로의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지역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의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36만 2천여 명에서 2042년 16만 6천여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12만 8천여 명에서 6만 2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가장 큰 변화가 초등교육 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감소 폭도 적지 않다. 칠곡은 학령인구가 약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봉화·고령·영덕 등 여러 지역에서도 절반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포항과 구미 같은 주요 도시 역시 감소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가 더 이상 일부 농산어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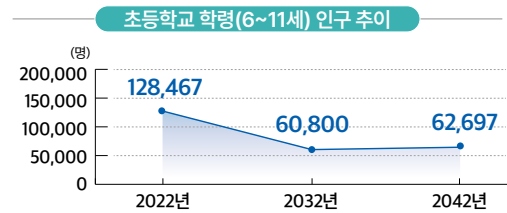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에 그치지 않으며, 학교 운영과 학급 편성, 교원 수급, 작은학교 유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어떻게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북교육이 공동교육과정과 미래학교, 지역 연계 교육,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 등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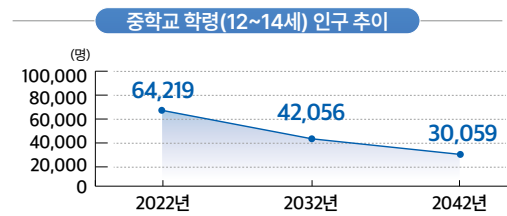
학령인구(6~21세)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362,348	248,911	166,910	-195,438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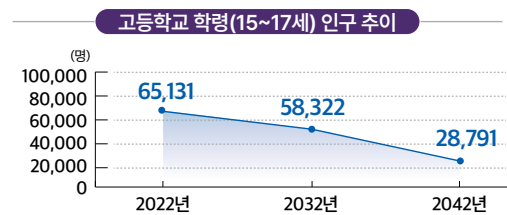
초등학교 학령(6~11세) 인구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128,467	60,800	62,697	-65,770	-51.2



중학교 학령(12~14세) 인구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64,219	42,056	30,059	-34,160	-53.2



고등학교 학령(15~17세) 인구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65,131	58,322	28,791	-36,340	-55.8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II. 변화하는 학생, 확장되는 교육지원

01

다양해지는 학교 공동체

이주배경 학생 수

경북의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주배경 학생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2년 11,445명에서 2025년 13,158명으로 늘어나며 최근 4년 동안 1,713명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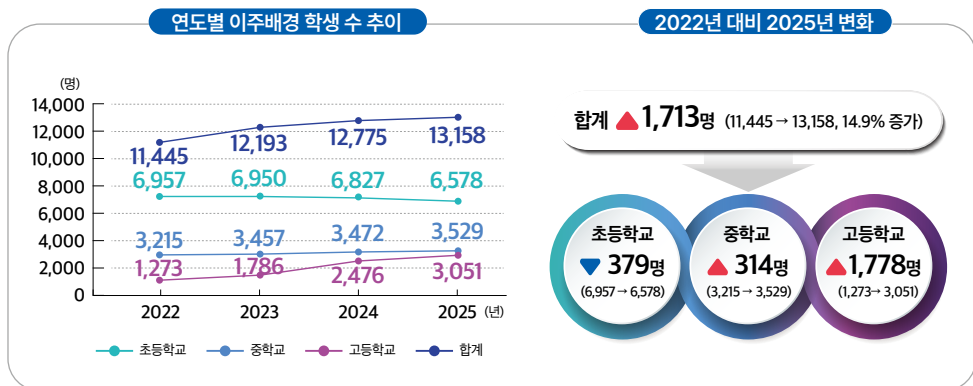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초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2년 6,957명에서 2025년 6,578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2022년 3,215명이던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5년 3,529명으로 늘어났다. 증가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주배경 학생 증가가 중학교 단계에서도 점차 일상적인 변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2년 1,273명에서 2025년 3,0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초·중학교를 거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단순한 한국어 적응 지원을 넘어 진로·진학 지도와 학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까지 함께 요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는 이제 일부 지역이나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의 모습이 달라지는 만큼 교육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경북교육 역시 변화하는 학생 구성에 맞춰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6,957명	6,950명	6,827명	6,578명
중학교	3,215명	3,457명	3,472명	3,529명
고등학교	1,273명	1,786명	2,476명	3,051명
합계	11,445명	12,193명	12,775명	13,158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이주배경 학생 부모 출신 국가

경북의 이주배경 학생 구성은 특정 국가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권 학생들이 함께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문화적 배경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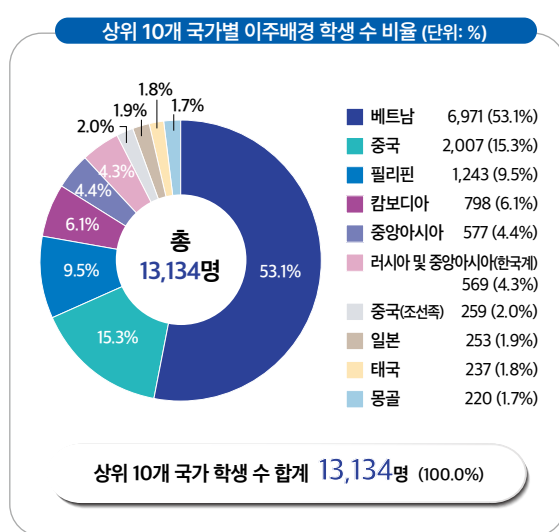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 출신 이주배경 학생은 6,971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꾸준히 증가한 흐름이 학교 현장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 출신 학생은 2,00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여기에 중국(조선족) 학생까지 포함하면 중국계 배경 학생 규모는 더욱 커진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출신 학생은 1,243명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경북의 이주배경 학생 구성이 특정 국가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권 학생 증가도 눈에 띈다. 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은 577명,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한국계) 학생은 569명으로 나타났다. 고려인 동포 가족과 재외동포 정착 흐름이 학교 현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학생 구성은 해마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제 학교는 단순히 한국어 적응을 돕는 공간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언어 지원뿐 아니라 문화 다양성 교육과 진로·정서 및 학부모 지원까지 함께 연결되는 보다 종합적인 문화교육 체계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순위	부모출신국가	이주배경 학생 수(명)
1	베트남	6,971
2	중국	2,007
3	필리핀	1,243
4	캄보디아	798
5	중앙아시아	577
6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한국계)	569
7	중국(조선족)	259
8	일본	253
9	태국	237
10	몽골	220
합계		13,1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기본통계>